

토 론 문

이 영 훈(고려대학교)

발표자: 최은경(경희사이버대학교)

발표제목: 한국문학 번역가의 행위자-네트워크 연구 - 한국어 학습 및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

본 발표는 한국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에 대한 번역사회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브뤼노 라투르의 ‘행위자-네트워크’ 이론을 두가지 한국문학 작품의 번역 출판 사례에 적용한 것이다. 번역사회학 연구는 서구에서 21세기초부터 시작되었으며,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연구방법론이다. 그 중 ‘행위자-네트워크’ 이론은 국내외에서 연구 성과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, 연구에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까닭에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.

그럼에도 본 발표는 “외국인 번역가의 한국어 학습 동기는 무엇인가?”, “외국인 번역가는 어디에서/어떻게 한국어를 학습하였는가?”, “한국어 학습 및 한국어 교육기관이 한국문학 번역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?”라는 문제 제기 하에 한강의 『채식주의자』와 김이듬의 『히스테리아』라는 두 작품의 영어 번역가를 문서 정보 수집 및 행위자 인터뷰를 통해 추적 조사하여 행위자-네트워크 구축 단계에 따른 번역가의 사회적 역할과 역량을 분석하고자 하였다.

따라서 본 발표는 국내 번역사회학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, ‘행위자-네트워크’ 이론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 더구나 본 발표의 후속 작업으로 보다 진전되고 심화된 연구들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.